

성령론

5

성령과 교회

I. 교회의 정의

- 처치(churcj) : 키리케(Kyrike) = ‘()’
- 에클레시아(ekklesia) = ‘왕의 명령을 받은 전령관의 부름을 받고 모인 사람들’
- **교회** :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이룩한 사람들의 공동체
- 마틴 루터** : 하나님의 백성, 그리스도의 몸, 성령의 전
- 칼빈** :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무리, **웨슬리** : 성도의 모임

1. 하나님의 ()

- 교회는 개인이 X, 집단적인 공동체
-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= 하나님의 주도적 행위, 교회의 출발 = 신자 개인X
- 교회의 근원, 본질 : 하나님의 부르심,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
- 하나님 : 남편, 이스라엘 : 아내 = 그리스도 : 신랑, 교회 : 신부
- 세례 : 개인의 구원 표시 +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받아들여짐

2. 그리스도의 ()

- 성만찬 :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 =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
- 에베소서 4장 15절
“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”

3. 성령의 ()

- 교회 = 성령의 집, 성령의 피조물, 성령 = 교회의 영X, 하나님의 영
- 루터 : 성도는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 = 교회는 거룩한 교회, 죄악된 교회
- 교회는 창조자인 성령에게 복종, 질서를 순종 = 교회의 미래를 기대.

II.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

-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교회를 가르치지 X,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
- 교회(에클레시아) = 마태복음 2회 사용(마16:18, 18:17)
- 하나님의 나라 : 예수님의 재림으로 비로소 궁극적인 완성
- 교회의 근원 = 부활 이전의 예수님의 의도, 사명X, 그리스도 사건 전체
-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, 오순절 사건X = 기독교 메시지X, 신앙X, 교회X

III. 성령과 개인과 교회

- 성령과 인간의 관계? 개인적?(), 집단적?() <- (스스로 체크해 보세요)
- 전통적 교회 : 교회 > 개인 = 로마카톨릭이 대표적
- 재세례파 등(급진적 집단) = 교회 < 개인
-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->그리스도 밖에 구원이 없다.= 성령 밖에 구원이 없다.
- ‘성령은 교회의 영=X’, ‘성령은 교회의 주님=0’
- 칼빈 : ‘교회란 성령과 각 신자가 만나는 과정에서 중요한 도구, 하지만 외관에 불과하다’
- 유진피터슨 : ‘우리의 기도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나오는 것’

IV. 성령과 코이노니아

- 성령은 교회 안에서 성도와 친교하는 것이 궁극적 사역
- 마음에 맞는 사람들의 모임X, 성령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사 모인 공동체
- 그리스도인이 받은 성령 : 양자의 영, 성령안에서 하나님을 “아빠 아버지”
- “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
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” 갈라디아서 4장 6절
- “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
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” 로마서 8장 15절

- 14.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
- 15.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
- 16.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
- 17.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
- 18.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
- 19.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. 에베소서 2장 14-19절
- 성령의 은사와 결합 대신, 분열이 온다면 그 은사는 소용이 X(고전 12-14장).
- 성령의 코이노니아 :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공동체 참여, 친교 = 천국의 모습을 현재화 하는 것. = 성령의 친교의 열매

V. 마무리

1. 성령과 ()

- 자유주의자들 : 교회의 회의를 통해 정경을 결정, 교황=교회 > 성서,
보수주의자들 : 성서자체를 강조, 성서의 문자 > 성령
- “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.”(벧후1:2)
- 성서가 문자화 되기 전, 성령의 역사가 선행, 성령 > 성서
- 성령의 역사가 선행되어야 한다.

2. 성령과 ()

- 세례에서의 물,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 : 성령의 역사를 통해 참된 효력
물 : 죄를 씻고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는 하나님의 언약 또는 약속
떡 : 그리스도의 살에 대한 표징
포도주 :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표징
- 이 세 표징들은 구원의 본체이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함
세 표징을 결합시켜 우리에게 효과적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

3. 성령의 ()

- 로마카톨릭 : 직분을 지나치게 강조, 성령의 은사를 희생
회중교회, 오순절주의적 교회 : 성령의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, 직제를 희생
성령의 은사와 직제는 대립관계인가?
- 고후3:6 : 성령의 은사가 없는 직제는 능력이 X, 문자의 직분
고전14:30 : 직제가 없는 은사는 무질서, 자신과 공동체를 어지럽게 함
고후3:6-8 : 성령의 은사를 동반한 직제는 ‘영의 직분’, 성령의 유익한 도구

4. 성령과 ()

■ 율법주의

- 성령과 복음(예수그리스도)이 없는 율법
- 성령과 복음의 도움 없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

■ 자유 방종주의

- 자유방종주의, 율법 폐기론 : 성령과 율법이 없는 복음
- 율법을 지킬 수 없다 -> 율법의 무용성 주장

■ 성령의 사람

- 그리스도인, 교회에 적용되는 율법의 차원 = 율법의 제3사용
구원을 받기위해 X, 구원받았지만, 죄를 안지을 수 없기에 더 짓는 것도 X
-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시면,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의 율법을 따름 = 믿음